

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(BTL)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9. 8. 31. 제 천 시 장
- 회부일 : 2009. 9. 2.
- 상정일 : 2009. 9. 9.(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한방경제과장 이주식)

가. 제안이유

한약재의 보관·유통과정에서의 변질 및 오염을 방지하고, 항온·항습·검사실·저장창고등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운영시설
 - 시설명 : 한약재유통지원시설(BTL)
 - 위치 : 제천시 왕암동 968번지 일원
 - 사업규모 : 토지 26,268m², 건축 5,677.58m²
 - 사업기간 : 2007~2010년(4년)
 - 사업비 : 10,000백만원(국고 5,000, 도비 2,500, 시비 2,500)
 - 주요시설 : 저장고, 전처리가공, 검사실, 전시 및 홍보실, 하역실 등
 ※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전국 5개 지자체 공동건립(bundling)
- 위탁운영조건
 - 시설사용료 :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
 - 제반비용 부담주체

- 건물 수선·교체 : 주무관청 또는 참살이
 - 다만, 일상적 단순한 개보수는 운영업체가 부담하며, 구체적인 범위는 위·수탁자 협의에 의해 결정
- 설비·물품(설계·가공장비·집기등)수선 및 교체 : 운영업체
- 경영비용 : 운영업체
- 시설관리비용(SPC지급비용) :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에 결정된 금액을 별도 지급
- 운영비 : 수탁자 부담(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관리유지비)
 - 운영업체 자체 충당, 제세공과금 운영업체 부담
- 시설의 위탁기간
 - 최초 위탁기간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5년이며,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연장 가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- 본 동의안은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「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 (위탁운영)에서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.
- 위탁하고자 하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10 제천국제한방 바이오 엑스포가 개최되는 왕암동 968번지 일원에 사업비 100억을 들여 저장고, 전처리가공, 검사실, 전시 및 홍보실, 하역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
- 위탁운영 조건으로는 시설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이상, 제반비용 부담주체에 있어서 건물 수선과 교체는 주무관청 또는 참

살이가 설비·물품 수선 및 교체와 경영비용은 운영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, 시설의 위탁기간은 최초 5년으로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.

- 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5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「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적격성조사·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연구」 결과에 따르면
- 지자체에서 조직신설에 의한 직영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초기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자체대응이 유리하나 조직신설, 유통시설관리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
-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운영시 한약재 유통시설 전문성강화로 수요창출 가능 및 물량확보가 유리하고 위탁업체 능력에 따라서 한약저장뿐만 아니라 유통, 제조 등 부대사업 활성화로 사업범위가 확대 가능하나 초기 수익성 불투명과 한약재 유통 전문기관 부족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전문위탁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시설운영여건을 감안할 때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은 위탁업체의 능력에 따라 시설운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건실한 업체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한방산업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있는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데, 경험이 없는 업체 선정시 5년 위탁기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함.(최종섭 위원)
- 수탁가능 업체는? 기업의 자본비율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향후 운영과 관련 발생가능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평가기관등 전문기관에 신용평가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?(유영화 위원)

나. 답변요지 <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>

- 시설 초기년도는 적자가 예상되고 3년이후부터 흑자가 예상되므로 수익을 감안 5년으로 하였고, 부실한 운영의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계약과정에서 정하겠음.
- 대기업 1개업체와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2개업체가 예상됨. 보건 산업진흥원이 처음부터 위탁을 줘서 평가하는 것으로 했으며, 향후 신용평가등 병행하여 추진하겠음.

5. 소수 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결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(BTL)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부. 끝.